행복에 관하여

202114110 조예나

“나는 행복한가?” 사실 기나긴 수험생활이 끝난 지금은 입시준비를 하던 때 보다는 많이 울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다. 확실히 근심이 조금이나마 줄어든 것 같다. 그리고 그 땐 예민하게 반응했던 주제에 조금은 무뎌진 것 같다. 그리고 걱정도 조금 줄었다. 확실히 그 때보다는 많이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온전하지 않다. 요즘 나는 친구와 약속이 잡히거나 아르바이트를 가야할 때 나가기 전 극도의 긴장을 한다. 예전엔 밖에 나가기 싫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최근 집에만 있다 보니 누군가와 잡은 약속 자체를 기피하는 것 같았다. 그런 부분들만 보완하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그 부분은 최근 시작한 취미로 보완이 가능할 것 같다. 나는 최근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사고 싶었던 자전거를, 매일 타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다. 그래서 요즘 자전거 타기와 런닝을 반복하는 운동에 맛들렸다. 자전거 타는 것이 너무 재밌다. 정신적으로 힘들다가도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그리고 선선한 바람을 가르고 있을 때 근심걱정이 사라진다. 따라서 나는 근심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전거로 추억의 장소를 찾아 떠난다. 섣불리 찾아가지는 못하는 그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용돈 정도의 수입이 생겼는데, 그 돈으로 내가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사 보았다. 자전거 탈 때 메는 메신저백도 샀고, 무선 이어폰, 무선 이어폰을 꾸미는 케이스, 키링, 그리고 옷을 샀다. 저가의 물건들이지만 내가 번 내 돈으로 무언가를 샀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 학생 때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지,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다. 하지만 확실히 시간이 남으니 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더 자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것저것 더 해보는 것 같다. 나는 요즘, 이렇게 서툴더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내가 내 선택을 함에 있어서 행복에 대해 찾아가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아무 것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그 상태, 그 상황에서 내 의지로 무엇이든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하는 것, 예를 들어 드라마 보기라던가 자전거 타기가 그 예이다. 난 드라마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보고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 그리고 난 운동을 정말 싫어하지만 자전거는 자발적으로 탄다. 너무 재밌다. 드디어 운동에 정을 붙일 수 있을 것 같다. 점점 행복을 찾아나가는 것 같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는 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반복된 실패로, 그리고 자라온 환경으로 인해 나는 눈치를 많이 본다. 그리고 “난 안될거야” 라는 생각을 어느샌가부터 자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나에게 기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게 아니게 되면 나는 정말 나에게 미안하고, 내 자신이 불쌍하고 애처롭다. 난 이렇게 투자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나에게 자책하고 실망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의 열심히 하는 나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나에게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를 너무 굴렸다. 그리고 내가 지극하게 평범한 사람임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 이 점을 받아들이기까지 너무 우울하고 슬펐다. “그럼 난 도대체 뭐지? 나라는 존재가 꼭 필요한가?” 등의 생각을 했다. 하지만 조금은 내려놓는 것, 정말 좋은 태도인 것 같다. 또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인지했으면 좋겠다. 앞의 맥락과 비슷한데, 내가 조금은 특별하다는 생각에 막연하게나마 “이렇게 열심히 살면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할거야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졌다. 하지만 누가 알아봐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나도 평범한 사람임을 인지하고, 안 되면 다른 길로 가는 용기를 갖는 것, 내가 당장 필요한 마음가짐인 것 같다.